

## 악마의 날, 악몽의 순간

### 미국도 더 이상 안전한 땅이 아니었다

두 시간이 채 못 되는 동안에 미국 경제의 중심부와 국방의 심장부가 한꺼번에 무너졌다. 그것은 테러라고 불리웠지만 전쟁과 다르지 않았다. 그로써 세계 곳곳에서 반미 감정이 들끓어도 미국 본토에 있는 한 미국인은 안전하다는 믿음이 무너졌다. 미국은 어떤 적군도 침범할 수 없는 든든한 요새가 아니었다.

### 3,000명 이상의 무고한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건물 내부의 직원과 방문객들, 항공기 탑승자들, 소방대원과 구조요원들을 포함해서 모두 3,000명 이상이 사망 혹은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세계 60개국 국민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인 또한 18명이 희생되었다. (자료: 미국 FEMA 뉴욕지역사무소 집계)



### 언제 끝날지 모르는 테러와의 전쟁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프가니스탄에 병력을 파견해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이 함락되었다고 해서 테러의 위협이 지구 위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다. 국제적 테러와의 전쟁에서 아프가니스탄은 하나의 전선에 불과하다. 보이지 않는 적들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전선에서 도사리고 있는 데 이 전쟁의 어려움이 있다.

### 9·11테러가 보여준 뉴테러리즘의 특징

- 테러와 전쟁의 구분이 모호하다.
- 테러의 주체가 불분명하다.
- 테러 조직이 여러 국가와 지역에 걸쳐 그물망 조직으로 연결되어 완전한 궤멸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
- 전통적인 무력에 더하여 생화학 무기와 사이버 테러까지 다중적, 입체적으로 사용하여 값싼 비용으로 대규모 인명 살상 및 국가 인프라 파괴가 가능하며, 그 색출 또한 어렵다.



왼쪽: 세계무역센터가 항공기의 공격을 받고 화염에 휩싸여 있다.  
가운데: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인 건물에서 재를 뒤집어쓴 뉴욕 시민들이 빠져나오고 있다.  
오른쪽: 무너진 쌍둥이 빌딩의 잔해 속에서 시신을 수습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